

PET, 코스트 상승으로 채산성 악화

미국, 수요강세 불구 에너지·원료 코스트 강세 ... 수요증가율 8-9%

PET(Polyester Terephthalate) 시장이 수요강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에너지 및 원료코스트 압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.

Eastman Chemical에 따르면, PET 시장은 여름시즌 수요강세에 힘입어 수급밸런스를 유지해 왔으며 2004년 북미 PET 시장은약 8-9% 성장하고 세계시장은 약 10%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저반경제 성장으로 북미 시장은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규모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. 2003년 중반 가동된 신규 생산능력이 2004년 말 경 시장에 완벽히 흡수됨으로써 북미 생산능력 이용률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.

원유 및 천연가스 코스트강세로 인해 PET 생산기업들의 마진이 악화됐으나 6월 2센트 가격 인상분이 시장에 반영됐으며 7월 2센트 인상분도 곧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.

또 원료가격 상승 및 저마진이 지속되면서 9월1일 3센트 가격인상이 이미 발표된 상태이다.

DeWitt에 따르면, 2004년 PET 시장은 수요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석유, 가솔린, P-X(Para-Xylene) 및 PTA(Purified Terephthalic Acid) 가격상승 등 외부압력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.

미국의 2004년 PET 수요는 약 7-8% 증가하고 세계 수요는 약 10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북미 PET Bottle 그레이드 가격은 파운드당 55-59센트를 형성하고 있다. PET 가격은 석유 보다 가솔린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, 일반적으로 7-9월 PET 수요는 약세로 전환하지만 최근 코스트 구조 및 수요를 감안 했을 때 PET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반면, 금리상승으로 유로화 대비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 미국 PET 수출은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9/16>